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8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7일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5·18 구묘지 '국가 민주공원' 조성되나

광주시, 5·18 사적지 '역사 클러스터' 추진…행안부에 국비지원 요청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주요 배경지…이한열 등 민주열사 묻힌 공간
'5·18 때 헌혈 행렬'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미래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시가 '12·3 계엄사태'로 전국민의 주목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29곳)를 국가 주도 역사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큰 물줄기인 5·18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5·18 대표 사적지 역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대표적으로 '5·18구묘지'(사적지 24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지 11호) 사적지에 대한 국비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공간은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지이다. 시는 이들 5·18 사적을 국민이 추모하는 기념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립5·18민주묘지의 모태인 5·18구묘지를 국립묘지와 같은 지위, 국가지원이 이뤄지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역사 클러스터 사업에 담겼다.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 있는 5·18 구묘지는 1980년 5월 신군부가 5·18 희생자들의 주검을 청소차에 싣고와 처리하려고 조성한 공간이자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시립묘지다.

5·18 구묘지에 묻혔던 희생자들이 현재 국립5·18민주묘지로 옮겨지고 난 후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묘역으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이한열 열사의 망월동 구묘지 안장 이후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며 분신한 박승희 열사, 민족시인 김남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분신한 최현열 열사, 박근혜 정부 때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열사 등이 묻혔다.

시는 5·18구묘지에 2028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18역사광장·추모공간, 5·18 구묘지 역사관 등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이에 광주시는 정부에 2026년 기본 실시용역을 위한 예산(12억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도 역사 클러스터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뤄진 상징적인 5·18사적지다. 시는 민간 매입에 따른 사적지 훼손 우려에 따라옛 서남대학교로부터 2020년 7월 매입했다. 하지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본관과 부속건축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구조와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광주적십자병원을 적십자병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 등을 조성해 보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비(17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사업도 국가 차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문화 관광 및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역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4호로 5·18 영령과 민족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지 전경.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호남경선 시작…이재명 후보 '지역 공약' 주목

호남서 1박하며 표밭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는다. 〈관련기사 3면〉

26일 호남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전체 30%를 넘고 지지층이 집중된 만큼 당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청권 순회 경선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중원'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처음으로 1박을 한다는 점은 '텃밭'인 호남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지역민들은 이 후보의 호남지역 공약에 '깜짝 선물'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대선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4일 전북에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를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길자(여·85)씨, 박선우(23)씨, 김송희(여·67)씨, 더불어민주당 강유정(비례)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길자씨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모친이다. 김씨는 "그저께(21일)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아들 재학이의 투쟁이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점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대 미디어스쿨 2학년인 박씨는 조별과제를 하다 12·3비상계엄 선포 소식과 이 후보가 국회로 와달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국회 앞으로 달려간 대학생이다. 박씨는 당시 친구에게 "아침까지 연락이 안되면 어머니에게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었다.

또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여동생으로 이 후보 대선경선 캠프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씨는 12·3 계엄당시 "소식 없거든 죽은 줄로 알라"고 아들에게 알리고 국회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시·소설·평론·아동청소년·극작·만화 부문을 망라한 작가 414명이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낼 당시 서명한 한 명이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공동성명을 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5·18 정신에 대한 입장과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공약 반영 등의 입장을 내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호남권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 23일과 26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ARS투표가 실시된다. 26일에는 전국 대의원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불거지나 ▶6면
KIA 도루 저지로 승률 높인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목포 역사교훈여행 ▶22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

내년 9월 개최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이자 기획자인 호추니엔(사진)이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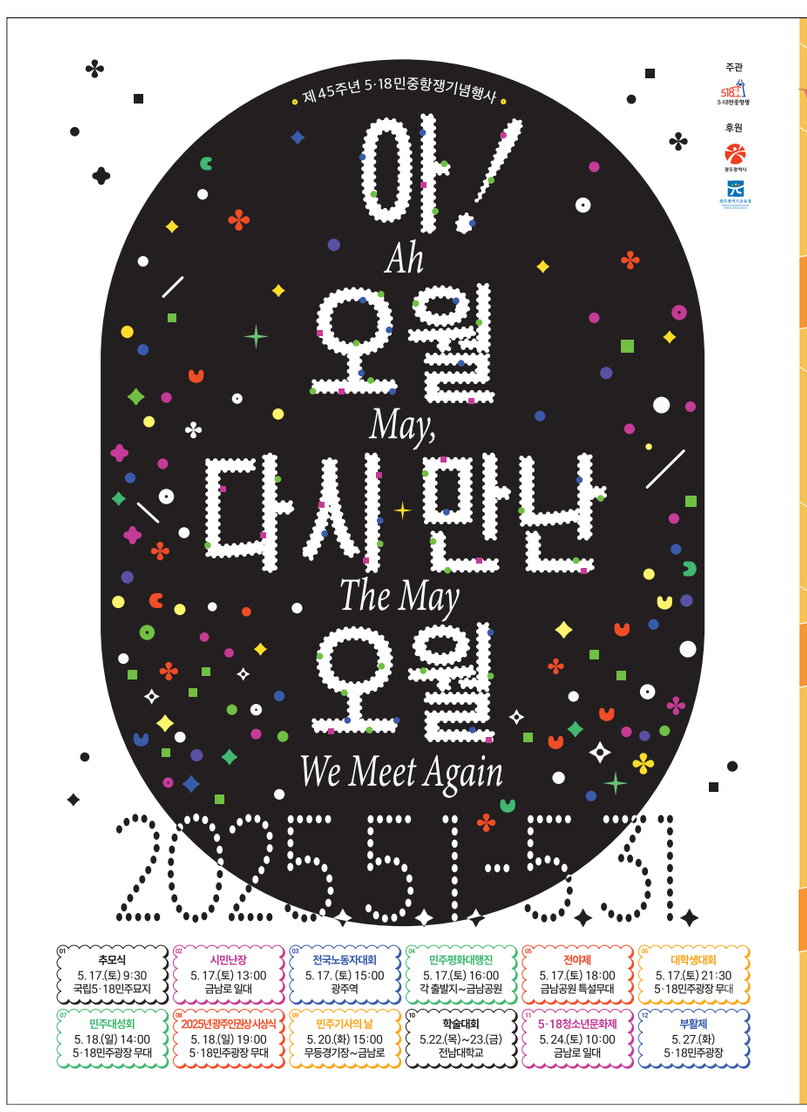
(재)광주비엔날레는 호추니엔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호추니엔은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과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광주비엔날레커미션으로 활동했다.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 파빌리온(2011년), 제10회 상하이비엔날레(2014년), 아이치트리엔날레(2019년) 등에 참여했다.

호추니엔은 영화감독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국제영화제(2009), 칸 영화제(2009), 베를린국제영화제(2015) 등에서 작품이 상영된 바 있다. 재단은 호추니엔이 제안한 '예술의 힘'과 이를 통한 '변화'가 광주비엔날레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기획이라고 밝혔다.

호추니엔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예술적 변화의 실천이 민주화를 이끈 광주와 어떻게 공명하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